

아시아 속의 오월

오늘부터 옛 전남도청 등서 '오월문학제'

광주·전남 민족문화작가회의(회장 채희운)는 광주 5·18민주화운동 26주년을 맞아 23~27일까지 옛 전남도청과 북구향토문화센터 등에서 '아시아와 함께 하는 오월문학제'를 개최한다.

이번 오월문학제는 23일 시화전을 시작으로 가곡시·산문 낭송대회(24~25일), 본행사인 오월문학제(27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27일 오후 3시30분 옛 전남도청 민원실 2층에서 열리는 본 행사는 소설가 조정래씨의 '5월 항쟁과 한국 문화의 나아갈 길'이란 특별강연에 이어 국내외 작가 30여명이 참가해 자작시 낭송, 시노래 공연 등을 펼친다.

국내작가로는 송기숙 전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장과 정희성 민족문화작가회의 회장을 비롯, 고재중·김경운·김규성·김해화·김형수·김희수·나종영·박관서·박남준·박두규·윤석주·이화경·임동화·장진기·조성국·조진태·최영철 등이 참가한다. 외국작가로는 크리스 라노 라카바·프란체스카(이상 필리핀)·키파엘 파니(팔레스타인)·샤리쉬 바셔(이스라엘)·불인 남바(몽골) 등이 참석한다.

이에 앞서 옛 전남도청 일대에서 열리는 시화전에는 문학제 참여 작가들의 작품들이 전시된다. 향토문화센터 내 오월문학관에서 열리는 '가곡 시·산문 낭송대회'에서는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담은 기성작가의 시·산문이 낭송될 예정이다. 문의 062-523-7830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스쿨피아싱어스 연주회

오늘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광주지역 초등학교 여교사와 예비교사로 구성된 스쿨피아싱어스(단장 김성국 광주교육대 교수·사진) 제12회 정기연주회가 23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합창 여행'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는 '르네상스의 마드리갈', '모차르트는 250살?' '우리 노래 우리 가락' '합창은 즐거워'라는 테마에 맞춰 '한강수 타령', 모차르트 '데퀴렐'과 '대관식 미사', '남이 오시는지', '메리의 어린양' 등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들려준다.

김동현(광주교육대교수), 바리톤 홍승연(광주교육대교수), 소프라노 박경숙씨를 비롯, 박준석·오윤자·방혜린·김조영 등 어린이들이 함께 출연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공중무희의 운명적 사랑 영화·소설로 부활



공중 무희 리진과 사랑에 빠졌던 실제인물 프랑스 공사 빅토르 콜랭 드 플랑시.

1886년 구한말 조선은 병인양요(대원군이 프랑스인 선교사 9명을 처형하자 프랑스 함대가 강화도에 침범한 사건)를 뒤로 한 채 프랑스와 우호통상 조약을 맺는다. 이듬해 최초의 주한 프랑스 공사 빅토르 콜랭 드 플랑시(Victor Collin de Plancy·1853~1923)가 부임한다. 그는 후임인 이폴리트 프랑랭(Hyppolite Frandrin)이 공사를 맡았던 1890~1895년까지 5년을 제외하곤 1887년부터 1906년까지 15년 동안 한국에 머물렀다. 플랑시는 한국에 머무는 동안 공중무희의 한 무희였던 리진(Li Tsin)과 운명적인

사랑에 빠지게 된다. 무희는 플랑시를 따라 프랑스 땅을 밟고, 플랑시가 잠시 머물렀던 모로코에도 동행한다. 이후 그녀는 1896년 플랑시와 함께 귀국, 금조각을 삼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2대 공사 프랑랭은 자신의 산문집(1905)에 플랑시와 무희 'Li Tsin'의 사랑 이야기를 언급한다.

프랑스 공사와 사랑에 빠지고 자살로 생을 마감한 구한말 공중 무희의 비극적

투입되는 이 영화는 오는 2008년께 개봉될 예정이다.

영화는 작가 김탁환씨의 소설을 원작으로 삼게 된다. 영화사 측은 이례적으로 기획 단계에서부터 김씨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특히 리진이 조선으로 다시 돌아와 비극적 운명을 맞게 된 이유에 대해 상세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극적 요소가 가미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황상 리진은 1870년 초반부

의 소설을 연재하고 있다. 신씨는 김씨 소설의 주인공 이름이 리진인 것과 달리, 프랑랭 산문집의 번역본 '프랑스 외교관이 본 개화기 조선'(태화사 펴냄·2002)에 나오는 무희의 이름 리진을 택했다. 신씨는 같은 인물을 극화 중인 김씨와 영화사 측의 프로젝트를 알게 되자 다소 당황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씨의 소설 역시 싸이더스 FNH 측에서 영화화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영화사 측은 "8월 신씨가 단행본을 내면 곧바로 (영화 '푸른 눈물') 제작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문화와 영화계가 공중무희 리진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구한말이라는 시대 배경과 프랑스 공사의 여자였다든 특수성, 젊은 나이에 자살했다는 점 등 세인들의 호기심을 끌만한 극적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 문학평론가는 "의도했던 것 같지 않았던 간에 동일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과 영화가 동시에 만들어진다"는 것은 문화계의 빅 뉴스"라며 "독자들이 두 작가가 주인공인 공중 무희를 어떻게 형상화하고,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비교하는 재미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김탁환씨



신경숙씨

佛 공사와 사랑에 빠진 고종의 무희 '리진' 이야기

LJ필름·나우필름, 김탁환소설 재구성 '리심' 제작

신경숙씨 조선일보 연재 '리진, 푸른 눈물' 도 인기

삶이 영화와 소설로 재구성된다. LJ필름과 나우필름은 불꽃처럼 살다간 공중무희를 소재로 한 영화 '리심'(가칭)의 제작을 추진하고 있다. 리심은 'Li Tsin'을 한문으로 썼을 경우의 중국식 발음이다.

영화는 플랑시로부터 '여신'이라는 찬사를 받았을 뿐 아니라 파리 사교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던 대한제국의 무희 '리심'을 다루고 있다. 200억원의 제작비가

1890년 중반까지 살았던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현재 소설 '리심'은 초고와 완성된 상태이며, '세계의 문화' 여름호에 발표할 예정이다. 김씨는 '불멸의 이순신', '방학반 살인사건' 등 선거운 시대물 액션(faction=fact+fiction)을 주로 써왔다.

소설가 신경숙씨도 지난 15일부터 조선일보에 '리진, 푸른 눈물'이라는 제목

윤애근·오이랑·김용관씨 등

2006한국국제아트페어 참가

광주 작가들 예술 나들이



윤애근 작 '공-매미'

광주 화단의 중진들과 신예 작가들이 국제 아트페어에서 작품을 선보인다.

한국화가 윤애근씨와 판화가 오이랑, 서양화가 김용관씨 등 중견 작가들과 조근호, 최인선, 김숙빈씨 등 청년작가들은 28일부터 30일까지 코엑스 태평양홀에서 열리는 '2006한국국제아트페어(KIAF)'에 참가한다.

한국회랑협회와 코엑스 등이 공동주최하는 KIAF는 국내는 물론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화랑들이 가세, 참가 화랑 수가 지난해 126개에서 150개로 늘어나는 등 세계적 수준의 아트페어로 성장하고 있는 국제전시회다.

전통적인 수묵화에서 탈피, 현대적 회화의 조형미를 추구해오고 있는 윤애근(전남대 교수)씨는 대전 오원화랑 초대로 작품을 출품한다.

윤 교수는 나비, 곤충 등의 이미지를 소재로 입체적인 조형세계를 추구한 '공(空)' 연작 시리즈 작품들을 선보인다.

조선화랑 작가인 김용관씨는 우주와 생명 창조를 주제로 한 작품을 통해 하늘과 땅, 영혼과 육체

가 일치되는 접점을 찾는다.

서양화가 조근호씨와 김숙빈씨는 나인갤러리 초청으로 처음으로 국제 아트페어에 얼굴을 내민다. 조씨는 수묵의 질감을 느끼게 하는 남도 풍광을 담은 작품으로 나들이에 나선다.

최인선씨는 순백색을 위주로 한 기존의 추상 작품 경향에서 벗어나 혼합재료를 사용해 밝고 경쾌한 느낌을 주는 작품들을 전시한다.

판화가 오이랑씨는 실리곤을 가늘게 잘라 화폭에 붙인 'EXISTENCE-WAVE'연작을 내놓았다.

조각가 김숙빈씨는 투명수지를 거꾸집에 넣은 뒤 경화시킨 작품들로 관객들을 만난다. 정재구리, 도롱뇽 등 양서류를 주제로 한 작품을 전시한다.

이밖에 각 화랑들은 저마다 부스를 확보해 마르크 샤갈, 파블로 피카소, 쿠사마 야요이, 후안 미로, 팔리코, 왕두, 백남준, 김환기, 이우환, 김창열 등 국내외 거장들과 중국작가, 신진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인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김숙빈 작 '청개구리'

A* 에이플러스 부동산컨설팅

자산컨설팅의 명가 광주·전남권 토지구획
Tel : 062)973-9174, 016-757-8800

월계동 국민은행옆
첨단의류 매장
신축건물 1층

임대

구분	임대 평수	권장업종
101	47평	임대가능 : 의류점 전면 7.3m코너
102	44평	입점확정 : 스프리스
103	47평	임대가능 : 의류점 전면 6.8m
104	25평	입점확정 : 화장품매장
105	50평	임대가능 : 의류점 전면 8.7m 코너

• 오피스빌딩: 헤드, K2, 킬빌미아, 아놀드파마, 캐니클라루스, 캠퍼스, 지오다노, 엘레세 등

장성·담양권 물건구함

매도 매수 교환 보유분석
투자유망물건 다량 보유(0천만원~000여만원)
062)973-9177, 011-625-1382

아주 특별한 제안

독점상권의 상업지역
■ 지하1층~지상6층, 연건평-2,500평
■ 특별분양·임대 상담환영

종합병원

- ▶ 엘리베이터 2대
- ▶ 주차장(150대) 완비
- ▶ 건물 준공 검사필
- ▶ 분할도 가능함

사우나(찜질방)

- ▶ 주차장 완비
- ▶ 제반시설 및 지하수 풍부
- ▶ 장성군민의 절대우치, 희망업종

건축주, 시공사, 시행사
주식회사 삼호주택이 직접 분양·임대분양

장성 삼호센트럴타워

- 분양/임대 상담문의: 061)393-5550
- 특별 상담(본부장): 011-624-1115

국민지도

http://www.hanmap.co.kr 국민지리정보(주)

- ◆ 최신정보수록, 3월 도시계획고시안 확정
- ◆ 2006 광주광역시 지적, 임야 약도 판매중
- ◆ 광주광역시 책자 5천분의 1 150,000원 판매중 100,000원 판매중
- ◆ 광주광역시 책자 포켓용 3만5천원

국민지리정보(주)대리점 모집

(광주지역 2곳)
현재 시판중인 지번도책 목록
광주광역시, 나주시, 광양시,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장성군, 함평군, 담양군, 화순군, 영암군,
무안군, 신안군, 진도군, 강진군, 완도군, 해남군

- 광주지사 : 062-385-0114
- 목포지사 : 061-284-7833
- 순천지사 : 061-744-0973

광주지사 위치: 상촌동 무진로 버들마을앞

중앙국토개발컨설팅

(한) 011-647-3500
(광주지법법원 뒷편)

상가, 점포

지신동 5층 상가, 대45평, 건
110평, 월건주거지역, 20m도
로면, 교통양호, 1, 2, 3층 사
무실, 4, 5층 주택, 매도 3억3
천만원

원룸

계림동 송선관광호텔 앞 원
룸, 대지53, 건물 중량 940
평, 지하1층, 지상4층(원룸11
개, 부동3개)

전원주택, 별장용지

전남 나주 풍림리, 자연녹지,
850평, 평당20만원, 조경가

싼땅매매

광주 남구 안촌동 대촌중앙초
교 건너(평간제 옆) 개발제
한, 자연녹지, 840평, 평당20
만원, 조경가

중고용 임야

장성 북이면 원덕리, 25,195
평, 농림지역, 자연환경보호
구역, 차랑출입용이, 계곡이
흐르고 전면에 저수지, 정남
향, 평당 12,000원

모지용 임야

화순 이십곡리, 너릿재와 검
분소 사이 우측 임야, 2500
평, 평당 50,000원, 조경가

GS부동산컨설팅

T. 572-7744, 9966
(한) 011-607-9908
(양산동 그린자이 건설현장 앞)

상가임대

- 1층: 외국,금은방,인경점
- 2층: 내과,소아과,아미안후과
- 3층: 안과,치과
- 4층: 화원기타

양산동, 신개발지 증양4거리
코너 APT 5000여세대 밀집
지역 삼정 최고

분양권매매

◎양산동 GS 그린자이
35평형 분양가 1억5800
3600 납부, 최상층 남향
중간리인 매매가 1억7천

42평형 분양가 2억5000
1억12천 납부 16층 중간리인
편안동 전망최고
매매가 2억1천700만

49평형 분양가 2억4200
1억5천납부 17층 중간리인
남향 조망권 최고
매매가 2억6천

56평형 분양가 2억8천
2천800 납부, 풀옵션
10층 조망권 최고
매매가 2억8천8백

현진에버빌 다량 확보

용한공인중개사

T. (대)682-8911
(용인2지구 미세우체국국대1관)

땅·원룸·상가전문

- ◆ 원룸주택
• 서구 용인동 용리초부근 신축3층 원룸
주택 대지60평 건물115평 원룸7개, 8
층주택(36평형)대지3천5백평(남양4
백만)206만·주인배대(매도, 용양동)
- 서구 용인동 용리초부근 신축3층 원룸
주택 대지64평 건물115평 대형원룸2
개, 부동1개, 소파68, 3층주택(40평
형) 대지8천만(남양3천5백만)4200
만·주인배대(매도, 용7천만3500)
- ◆ 상가매매
• 서구 내원동 아파트 2천여세대 중심상
권 3층상가 대지500평 건물80평 대지97
천만(조경가, 보5천5백만)11억950만,
용8천만보유)
- 서구 용인동 용리초부근 3층 상가주택
대지800평 건물118평 1층상가, 2층 소
리점2, 3층 안방 대지3천3백만(조경가,
보3천8백만)11억800만, 용8천
- ◆ 토지매매
• 서구 용인동 용리초부근 2층주거
지역 대지1000평 대지170만
• 서구 용인동 용리초부근 2층주거
지역 대지1000평 대지170만
• 서구 용인동 용리초부근 2층주거
지역 대지1000평 대지170만
- 남구 노안동 도시의 자연녹지, 전, 모
지적할 470평 매11만/평(주변토지
조성되어 있음)
- 함평 월이면 용정리 자연녹지, 전, 모
지적할 470평 매7만/평(주변토지
조성되어 있음)
- 담양 담양읍 학동리 매대채과이어
거리인원, 주민농장조합, 차량진입
가능 대지 257평 매7만/평

●금호저거, 용인2지구 아파트 입주할
여성 2분을 모십니다.(초보가능)